

**지역인재 양성 기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정동기 회장과 회원들이 29일 양구군청을 방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전창범 군수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 도정 사상 최대 1,202명 인사

글로벌투자총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도는 29일 국장급 이하 1,200여명의 인사를 내년 1월2일자로 단행했다. 국·과장급 70명, 담당급(5급) 이하 496명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부서이관에 따른 인원까지 합치면 1,202명으로 도정 사상 최대 규모다. ▶명단·프로필 6·15면

경제분야 총괄주무국인 경제진흥국장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겸 경제진흥국장을 이미 한 차례 역임한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다. 조직이 확대된 글로벌투자총상국장에는 경제정책과장과 철원부군수 등을 역임한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이 영전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는 관광

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주의 경제진흥국장, 동계올림픽본부장에는 김지영 강릉부시장, 도의회 사무처장에는 한만수 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에는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녹색국장에는 안병현 도의회 의정관, 농정국장에는 어재영 농촌정책과장, 신설된 총무행정관에는 박만수 관광정책과장, 기획관에는 김만기 레고랜드추진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도의회 의사관으로는 윤순근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이 자리를 옮겼고, 의정관에는 김철래 체육진흥과장이 승진했다. 강릉부시장은 김학철 동계올림픽조직위 미디어운영국장, 영월부군수는 박대인 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 화천부군수는 김길수 전략산업과장, 인제부군수는 전창준 동계올림픽조직위 교통숙박부장이 발령됐다. 이규호기자

## 담합 유도 부작용 '1사1공구제' 내년 폐지

특정 회사에 일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던 '1사1공구제'가 내년 부터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가 여러 공구로 분할하고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일감 쏠림현상 방지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1사 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1사 1공구제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철도공사나 4대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선형(線形)인 발주 물량에 적용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담합 방지대책과 함께 부실시공 및 적자시공의 원인이 된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정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이 된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등이 개선 및 폐지되면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선안 시행 이후에도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때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도 실국장·부단체장 인사

|          |     |        |     |
|----------|-----|--------|-----|
| 도의회사무처장  | 한만수 | 올림픽본부장 | 김지영 |
| 경제진흥국장   | 최중훈 | 인재개발원장 | 조규석 |
| 글로벌통상국장  | 서경원 | 강릉부시장  | 김학철 |
| 문화관광체육국장 | 이주익 | 영월부군수  | 박대인 |
| 농정국장     | 어재영 | 화천부군수  | 김길수 |
| 녹색국장     | 안병현 | 인제부군수  | 전창준 |

**▶프로필 18면**

강원도는 29일 한만수 인재개발원장을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임용하는 등 조직개편, 명예퇴임, 공로연수 파견, 시군 부단체장 교류, 장기교육 복귀 및 신규입고 등에 따른 정 기인사를 새해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경제진흥국장에는 최중훈 안전사지행정국장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에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에 이주익 경제진흥국장을, 겨울올림픽본부장에 김지영 강릉부시장을, 인재개발원장에 조규석 겨울올림픽추진본부장을, 녹색국장에 안병현

도의회 의정관을, 농정국장에는 어재영 농촌정책과장을 임명했다. 의정관에는 김철래 체육진흥과장을 승진·발령했으며 의사관은 윤순근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을, 조직이 축소된 총무행정관에 박만수 관광정책과장을, 기획관에 김만기 레고랜드추진단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미디어운영국장에는 고위정책과정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이진홍 부이사관을,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에 허해구 부이사관을, 강원FC 사무국장에 전용수 전 도의회 의사관을 파견했다. 또 강릉시 부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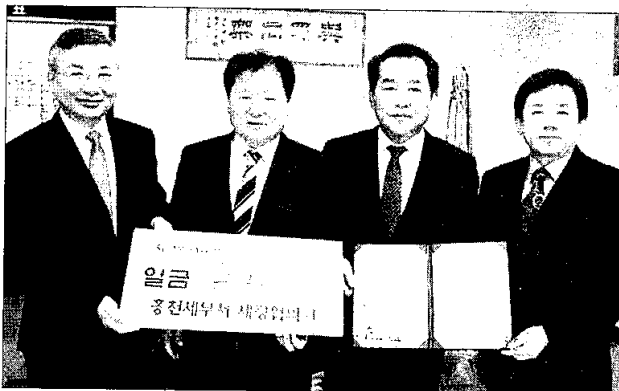
김학철 평창올림픽조직위 미디어운영국장, 영월부군수에 박대인 도의회 전문위원, 화천부군수에 김길수 도전락산업과장, 인제부군수에 전창준 평창올림픽조직위 교통속박부장을 발령했다.

도로 진입하는 김상일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전략산업과장, 김제훈 화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교육법무과장, 최정집 인제군 부군수는 관광개발과장에 임용했다.

신설된 통상지원과장에 전홍진 GTI바람회추진단장, 국제교류과장에 박천수 전 양양부군수, 체전기획과장에 박광석 규제개혁추진단장, 교통과장에 한석희 자원개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단장에 백승호 사회적경제과장을 임명했다.

한편 유재봉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한수 기획관, 장시택 총무과장(승진)은 국장급 장기교육자로 발령했다.

김홍주 도의회 사무처장, 김덕래 녹색지원국장, 김두식 도의회 의사관, 홍종각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은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안은복



**홍천세무서 세정협의회 장학금 기탁** 홍천세무서 세정협의회(회장 오인철·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29일 오전 홍천군청을 방문해 노승락 군수에게 무궁화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 인사

**강원도청**

◇과장급 전보=△임재설 세정과장(회계과장)△김보현 균형발전과장(자치정책과장)△이승섭 사회적경제과장(동계올림픽 특구육성과장)△백중수 기업지원과장(기업활성화과장)△전홍진 통상지원과장(GTI바람회추진단장)△박천수 국제교류과장(총무과)△지승태 레고랜드 추진단장(총무과)△탁동훈 체육과장(세정과장)△이근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여성가족연구원장)△황영수 교육지원과장(총무과)△황병일 교육연구실장(법무통계담당관)△김수산 기획행정전문위원(교육지원과장)△백승호 창

조경제혁신센터준비단장(사회적경제과장)△박근영 특구육성과장(총무과)△지순식 교육(환경정책과)△김봉헌 교육(투자유치2과장)△유승근 2018평창동계조직위(총무과)△김세훈 교육법무과장(화천군)△김상일 전략산업과장(영월군)△최정집 관광개발과장(인제군)△박대인 영월부군수(기획행정전문위원)△김길수 화천부군수(전략산업과장)△전창준 인제부군수(2018 평창동계조직위원회)△안진석 춘천시( )△전재섭 농정과장(농식품유통과장)△허성재 유통원예과장(감자종자진흥원장)△김병기 산림소득과장(산림자원과장)△최기호 산림관리과장(산림개발연구원장)△한석희 교통과장(자원개발과장)△석성균 농산물원종장장(총무과)△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장(농산물원종장장)△안덕수 회계과장 직무대리(DMZ정책담당관 직무대리)△진성영 자원개발과장 직무대리(체전준비단장)△최병규 규제개혁추진단장 직무

대리(DMZ박물관장 직무대리)△박광석 체전기획과장 직무대리(규제개혁추진단장 직무대리)△손인주 교육(교육연구실장 직무대리)△고정배 교육(강원FC 사무국)△김광삼 DMZ 박물관장 직무대리(환경정책과 행사지원과장)△김영녀 여성가족연구원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장급 승진=△김영길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이업지원과)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직무대리)△최든위 산림개발연구원장(산림자원과)△정준호 투자유치 2부장 직무대리(기업활성화과)△박장규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무대리(총무과)△윤성보 강원FC 사무국(지역도시과)△노명우 2018 평창동계조직위(관광정책과)△박종완 ( )△김광수 총무행정관실(예산담당관실)△이병한 총무행정관실(세정과)△김명식 개발사업부장 직무대리(방재담당관실)△고만식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직무대

리(수산정책과)

새누리 “경제활력 위해 대통령에 사면·가석방 건의”

##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 행정제재도 풀릴까 ‘촉각’

새누리당이 국민 대통합과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한 생계형 민생사법을 중심으로 한 ‘특별 사면’과 ‘가석방’ 군불때기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법을 포함한 사면과 가석방 단행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기업인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까지 다함께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하려 하는데 양해해달라고 하면 야당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과 가석방 건의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청와대 신년 인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해 한 번 정도는,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힘을 실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기업인 가석방,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내비친 상황이어서 의견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 25일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건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 가석방이니 특별사면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기업 총수 사면·가석방 문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 대해 언명해 온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2년 설 명절 당시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 제재 3700여건을 해제하는 등 7차례의 특별사면 조치를 했다. 김영삼 정부는 9차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8차례를 단행했다. 한형용기자 je8day@